

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·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7.8.(수) 한겨레(온라인), 금속노조 “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, 24개 원청 대기업 모두 교섭거부” 등

-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“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금속노동자 2만1200명, 77개 지회·분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, 교섭요구를 받은 24개 원청 대기업은 모두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2. 설명 내용

- 금속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한 원청 사업장 24개소 중 10개소는 교섭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
 - 이중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친 4개소는 교섭의제·일정 등 실교섭 단계에 진입하였고, 그중 2개소에서는 실제 본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
 - 그 외 14개소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됨
-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교섭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,
 -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원청이 법에 따른 교섭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실교섭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	책임자	과장	최재윤 (044-202-7372)
	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	담당자	사무관	서관범 (044-202-7693)